

개척에 준비된 사람들
(사도행전 16:6-15)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개척 사역에 쓰임 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준비된 개척자

■ **성령 체험:** 하나님은 유령 대륙을 복음화하기 위해 사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울은 당대 바리새파 최고의 지도자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신학과 율법을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도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포기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통해 큰 비전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율법주의적인 종교인이었던 사울에서 성령의 사람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선교지 개척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종교적인 행위, 자기 의를 세우는 일로 전락합니다.

■ **성령의 부르심:**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고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선교 사역에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들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 선교의 발걸음을 뒀습니다. 바울의 첫 선교지는 오늘날의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바울은 놀라운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바울의 아시아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원래 계획을 접고,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과 가까운 드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나 사람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마게도나로 떠났습니다.

☐ 준비된 동역자

■ **기도함:** 바울 일행은 아무 준비도 없이 빌립보에 갑자기 왔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막막한 상황에서 계획을 짜내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의지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 기도하는 것은 자기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임을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더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악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필이면 영적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마다 중요한 선택을 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가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의 회복에 전념하고 힘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도구로서 사람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 **말씀을 전함:**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뜨겁게 반응합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루디아가 반응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루디아를 그때 그 장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행 16:31).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며 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소원을 주신 후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빌 2:13).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녀의 집은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울과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개척에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의 인생을
人生이 바뀐다

화평당 최영옥 집사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인생 간증
기쁨의교회는 예배 때에 예수님으로 변화된 간증을 발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벌써 우리교회가 30년이 되었네요. 저도 기쁨 의교회에 온 지가 만으로 30년이 되었습니다. 30주년 기념예배가 발표되었을 때, 이곳에서 보낸 30년의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귀한 곳에 있었을까요?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아 들 주연이가 태어난지 2개월 만에 희귀병으로 판명되어 10번정도 수술후 입퇴원을 반복했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그리고 살더라도 견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 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지요.

희망이 없어서 날마다 울었던 거 기억하시죠? 꿈에서조차 우울했던 그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선교단체 목사 언니를 통해서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1996년 7월 비가 억수로 퍼붓는 날이었는데 몇십년 만의 폭우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었던 그날, 목사언니는 아이가 셋이었는데 한명은 말기고 한명은 안고 한명은 업고 그 폭우를 뚫고 버스를 타고 왔고, 저도 폭우를 뚫고 아이를 안고 버스를 타고 왔었죠. 목사님께서 그날 물에 빠진 생쥐같은 우리들을 반겨주셨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떠오릅니다.

주연이가 목사님의 기도로 나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비를 뚫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지만, 저의 바램과 다르게 목사님은 오히려 주연이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왜냐하면 아이의 영혼 이전에 아이의 문제로 오랜 고통가운데 있었던 저를 고쳐주심이 더 우선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기쁨의교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기도모임에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었죠. 그때 주연이는 뇌혈관 기형이었고 머리에 물이 많이 차서 뇌압이 높은 상태라 집에서는 잠을 못자고 밤새 울었었는데 너무나 우울했고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아들만큼 같은 그 곳으로 인도할 받지 못했다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연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오면 주연이는 고래고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단점을 주셔서 한번도 깨지 않고 잘 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병원에서는 견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했던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그 후에 많이 늦긴 했지만 32개월에 걷게 되었고 40개월쯤 말할수도 있게 되었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께 사대질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주연이가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IMF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사대질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 다 모르고서 하나님은 안계시다고 하면서 한시간 동안 울면서 불평 불만 원망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때가 금요일야 기도회였는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교회였는데 그때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성령님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러나 돌덩이처럼 딱딱한 나의 마음에 말씀을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시간이 넘는 원망 불평의 울부짖는 소리에도 화내지 않으시고 잠잠히 들어주셨습니다. 온유하고 잔잔하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시간 동안 화개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그때 주셨던 말씀으로 버틸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가정불화로 늘 불안해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나를 이 가정에서 첫 열매로 불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친정엄마와 외할머니도 화양리 개척때부터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드리하는 것은 엄마의 장례예배를 통해서 친정아버지와 오빠가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늘 교회가자고 하면 적성에 안맞는다. 너네 나 천국가라, 나는 지옥간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엄마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아빠가 하는 말은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니 듣지 마시고, 아빠가 재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받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죠. 아빠가 너무나 강박해서 늘 마음이 낙심이 되었는데, 그런 아빠가 지금은 엄마가 보시던 성경책을 하루에 2-3시간씩 읽으시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 보고계시죠? 저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가족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연합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모습이고 연합하고 죄투성이인 사람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제가 앞으로 얼마동안 지낼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영혼을 울음데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성도의 죽음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 기쁨의 교회 뜻대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기쁨의교회 방송 설교 안내 - CTS TV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생명의 말씀

1) 케이블TV: 용인(기남방송 222번), 광주(C&M 700번)

2) IPTV: Sky Life 183번, KT olleh TV 236번, Btv 551번, U+ 18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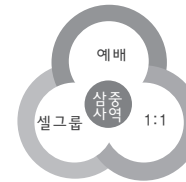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서울국동방송 : 매주 금요일 오전 11:45 ~ 11:55 / 빛을 따라서

국동 방송 서울,경기: 106.9 MHz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영동국동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1:30 / 오늘의 양식

국동 방송 강원 영동: 90.1 MHz

- ▶ 기쁨의 교회 사역전락


- ▶ 기쁨의 교회 특징 10가지

1.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2.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3. 찬양이 살아 있는 교회

4. 전도와 간증이 있는 교회

5. 섬김의 삶을 사는 교회

6. 교제가 풍성한 교회

7.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8.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교회

9.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10. 제자를 세우는 교회

▶ 기쁨의 교회 오시는 길



▶ 대중교통 안내

[지 하 철 / 버스]

▶ 신논현역 7번 출구 또는 강남역 5번 출구 → 1241번 버스 → 동부센트레빌,동일하이빌차 하차

▶ 구성역(수인분당선 GTX)3번출구 → 31, 33, 34-2, 670번 버스 → 동부센트레빌,동일하이빌차 하차

현금 온라인 계좌 안내

● 주일헌금 : SC제일은행	572-20-230777	예금주 : 기쁨의교회
● 십 일 조 : KEB하나은행	630-006691-277	예금주 : 기쁨의교회
● 감사헌금 : SC제일은행	572-20-308622	예금주 : 기쁨의교회
● 건축헌금 : 국 민 은 행	402601-04-012600	예금주 : 기쁨의교회
● 선교헌금 : SC제일은행	572-20-179152	예금주 : 기쁨의교회
● 카라건축 : SC제일은행	572-20-305118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카라일반 : SC제일은행	572-20-305129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카라장학 : SC제일은행	572-20-321620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모바일헌금 QR코드



« 기쁨이 쏟아지는 새시대 새교회 기쁨의교회 »

www.joyfulchurch.org

창립 30주년

2026년 교회 표어

하나가 되게 하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LET US BE ONE

JOHN 17:22

담임목사 정 의 호

제2026-29호 통권 6954호

7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기쁨의교회

교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6 Tel. 031-713-0691 Fax. 031-713-0692

MTC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119 Tel. 031-711-0191

